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잇는 가고 환웅

(이스라엘 12지파 중 사라진 단지파)

(환웅은 신화적 인물 아니다)

우리민족이 하나님의 작계 천손민족이라고 자부하는 것은 단군조선을 건국한 단군왕검이 환인의 서자 환웅의 아들이라는 신화가 있기 때문이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인과 서자 환웅의 역사는 단군조선의 뿌리를 찾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환인의 아들 서자 환웅의 역사는 곧 이 땅에서의 단군조선의 역사와 하늘나라 문화 풍속을 가지고 살던 환인의 역사를 잇는 매우 중요한 고교이므로 이 과정의 역사를 세계사 속에서 그 뿌리를 찾아야 하고 왜 그러한 신화의 역사가 있고,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얻은 것처럼 야곱과 라헬도 단이 태어나자 장자 축복을 하였다 (thebiblistudy.co.uk)

역사를 정확히 알려면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역사책을 보면 된다. 그러나 문자로 기록된 역사가 없는 고대 인류사는 모든 민족이 그러하듯이 정확하게 인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조차 정확히 기록된 것이 없으며, 과학이나 철학, 종교라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상세히 말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교적 영감이나 과학적 추론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적 인간관 조론과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빅뱅이론이나 어떤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경이 적어도 3500 년전 기록이므로 가장 사실적인 고대 인간사회의 모습과 인류의 번성과정을 기록한 최고(最古)의 역사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삼국유사나 한단고기 등 우리의 고대사 기록은 불과 1000 년전 기록에 불과하므로 우리민족이 성경 상의 단지파 민족이라는 구세주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구약성경 속에서 우리민족의 뿌리역사나 문화, 풍속의 유래 및 하나님의 역사나 서자환웅의 역사와 단군민족의 역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인류 최고의 역사 책 성경

이 가운데 인류사의 가장 오래된 문헌이라면 성경을 들 수 있다. 성경은 모세가 쓴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5경이 적어도 3500 년전 기록이므로 가장 사실적인 고대 인간사회의 모습과 인류의 번성과정을 기록한 최고(最古)의 역사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삼국유사나 한단고기 등 우리의 고대사 기록은 불과 1000 년전 기록에 불과하므로 우리민족이 성경 상의 단지파 민족이라는 구세주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구약성경 속에서 우리민족의 뿌리역사나 문화, 풍속의 유래 및 하나님의 역사나 서자환웅의 역사와 단군민족의 역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단군민족의 역사가 공중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온 특별한 사람이 이 땅에서 이룩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던 어떤 부족이 선진문명을 가지고 알타이 산맥을 넘어오면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인류학적, 언어학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청동기를 사용한 청동기문명이라는 점, 고대히브리어나 수메르어와 동일한 계열의 언어를 사용한 점(오늘날까지 '에비, 에미, 나' 라는 호

칭의 단어가 이스라엘민족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성경 상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제천행사나 결혼, 장례의식의 풍속이 동일한 점을 그 논거로 들 수 있다.

### 환인 환웅 단군 3시대로 나눈 성경 역사

이러한 전제 아래 우리의 고대 민족사와 성경 속의 이스라엘 고대사와 연결하여 다시 환인, 환웅, 단군 시대로 나누어 본다면 환인시대는 인류의 조상 야곱으로부터 야곱(BC2006~BC1859)까지 하나님의 신이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서 다스리던 시대로 대체할 수 있다. 서자 환웅 시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로 성경 상 잃어버린 단지파 단지파가 알타이산맥을 넘어 대동강유역까지 이동과정의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지파의 무리(사사기 21:24)들은 삼국유사의 고조선편의 환인의 서자 환웅의 무리 3천으로 상정되며, 그들이 이스라엘의 소라를 떠나 동북방으로 이동해온 기간의 역사로 볼 수 있다. 단군왕검의 시대는 고조선 건국 이후의 역사로서, 이스라엘 단지파의 무리들이 만주 요하를 지나 하나님이 예비하고 약속하신 동방 땅 끝, 땅 모퉁이의 나라 한반도로 이주하여 단군왕검이 세운 고조선의 역사로 상정할 수 있다.

민족사학자들 중 일부는 환인시대(3301년, 삼성기 상)와 서자 환웅시대(1565년, 삼성기하) 그리고 고조선을 건설한 단군조선시대(BC2333-108-2215년, 단군세기)와 현대로 구분하여 9198년의 역사를 주장하는데 이는 고고학적, 역사·종교·철학적 근거가 입증된 역사는 아니므로 하나의 주장에 불과하다 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역사관을 달리해서

볼 때 비로소 우리민족의 역사가 바로 서게 되고, 인류 시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온 천손 직계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성경과 모든 예언서들이 예언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서자 환웅의 실체

이제까지 한국고대사의 시대구분을 성경 역사와 비교해 보았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한민족이 천손직계민족이라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환인의 서자 환웅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성경 상 잃어버린 단지파 단지파의 시조 '단'의 출생 배경을 보면, 야곱과 라헬이 외사촌 여동생 두 명과 결혼하게 되는데 먼저 결혼을 약정한 본처 라헬은 후처인 레아가 네 명의 자식을 낳기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로 생각하고 남편과 합의하여 그녀의 몸종 빌하를 씨받이로 받아들여지게 된다(창 30:1~6 참조). 그리하여 얻은 아들이 '단'이며, '단'의 의미는 "심판자, 재판관, 억울함을 풀다"는 뜻이다. '단'은 전체 서열로는 다섯째이면서 본처 정자의 명분을 얻었고 야곱으로부터 마지막 때 심판권을 받게 된다(창49:16).

본처와 후처가 된 라헬과 레아는 서로 아들 낳기를 경쟁하여 레아도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더 낳고, 본처 라헬도 나중에 직접 그 소생으로 요셉과 벤야민을 낳아 전체 12아들을 낳았으니 후에 이스라엘 12지파민족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야곱 하나님이 말년에 12아들들의 장래 일을 축복하고

예언할 때 "단은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중략) 여호와여 구원을 기다리나이다(창 49:16~18)"하였다. 결국 마지막 때 이 세상을 구원하고 모든 민족을 심판할 구세주는 단지파 민족의 혈통을 타고 출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민족의 씨받이제도가 바로 야곱의 다섯째 아들 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단지파는 사사 삼손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 미인계에 빠져 죽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떠나 그 형제 부족과 헤어지게 된다. 그것이 지금부터 약 3200여 년 전의 일이다. 그래서 단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잃어버린 지파가 되고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서 그 이름이 누락되었다(계7:1~8).

단지파는 이미 야곱 하나님 시절 하나님의 심판권을 축복 받았기에 하나님의 신이 이끄시는 대로, 이스라엘 형제 지파를 떠나 그 옛날 모세시대 애굽 대탈출을 하였듯이 단지파 민족은 미지의 신천지를 개척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형제 부족을 떠나 동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동방으로 지중해 동쪽 연안을 따라 카스피해를 건너 우랄 알타이 산맥으로 이동하여 주변부족을 정복하고 약 200여 년을 바이칼호를 주변으로 삶의 터전을 닦은 후 언어변화를 하고 새로운 단군민족 고유문화를 발전시켰다.

### 이스라엘 단지파의 후손을 입증할 과학적 역사적 연구 촉구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우리 고대사 연구자들이 아직 역사를 바로 보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 성경의 역사를 남의 역사로만 보고 잃어버린 고대사를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스라엘 민족과 한민족 간의 문화 풍속은 씨받이 외에도 많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의 후예라는 것을 입증할 고고학적인 자료가 있으며 유전적으로 이스라엘민족과 동질의 DNA를 가졌느냐 하는 문제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허심탄회하게 밝혀 볼 일이다. 이처럼 우리 한민족 고유 풍속의 하나인 씨받이를 통하여 전설로만 여기고 그 출생 배경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서자환웅과 단군민족의 시조이신 '단'의 출생배경을 알게 됨으로써 새로운 한민족사의 정통성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서보록 / 역사 연구가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102)

### “하나만 이루어지면 끝나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나의 주님이 인간들을 영생하게 하는 주님이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긴자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 이루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

필요 없고, 셋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완성이 되면 온 인류가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행복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 속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란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요절을 육비에 새기도록 암송합시다!

## 구도의 길

### 구세주를 100% 믿어야 사망을 이길 수 있다

그대는 지금 어떤 죽음의 경지에서 싸우고 있는가?  
죽음의 경지에 가보는 했는가?

승리제단 신앙은 조희성 구세주께서 사망을 이겼다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조희성 구세주가 사망을 이긴 하나님이라는 믿음에서 승리제단 신앙은 시작된다. 실령 제단을 매일 출석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를 믿지 않으면 마치 모래위에 쌓은 성(城)처럼 바람이 불어오면 그의 신앙은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보기에 조희성 구세주께서 2004년 6월 19일 죽어서 육신이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사망을 이겼다는 것을 전혀 믿지 못한다. 영생할 수 있다고 전도하면 그들은 사망을 이겼다는 존재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하고 되묻는다. 불신자들의 말대로 조희성 구세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사람의 몸은 기계와 같아서 사용하면 낡아서 고장이 난다. 그래서 기껏해야 120세까지 살 수 있을 뿐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조희성 구세주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죽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조희성 구세주는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몸을 헤어질 수 없는 숫자로 쪼개 분신(分身)으로 움직이며,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며, 전지전능의 권능을 행

할 수 있는가? 조희성 구세주는 보광(普光) 후에도 똑같이 분신으로 나타나 이슬을 내리며, 풍운조화를 비롯한 전지전능한 권능을 행하고 있다.

누구라도 조희성 구세주를 100% 이기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는 이긴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자신 속에 있는 마귀가 100% 믿게끔 하지 못하게 한다. 온갖 생각이 방해를 논다. 각자마다 강한 마귀가 있는바 음란이 강하면 음란으로, 헬기가 강하면 헬기로, 자존심이 강하면 자존심으로, 자의식이 강하면 그것으로 믿음을 허물어뜨린다.

조희성님은 밀실에서 도를 닦을 때 자신의 생각을 모두 이기셨다. 억만 생각을 이기기 위하여 중노동을 하셨다. 힘이 들어 죽을 정도의 경지에 올라가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잡념을 이기고 이겼던 것이다. 그리하여 죽음의 경지를 넘고 넘어서 완전히 자신을 이겼던 것이다.

구세주란 사망을 이긴 존재이기 때문에 구세주이다. 죽음의 경지를 수없이 넘어서지 않고 구세주가 될 수는 없다. 그대는 지금 어떤 죽음의 경지에서 싸우고 있는가? 죽음의 경지에 가보는 했는가? 구세주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마치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직접 싸워서 이겨야만 영생은 획득되는 것이다.\*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 누구든지 내 몸처럼

### 승리제단은 사망을 이긴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 자유율법을 지키고 살면 영생을 얻게 되는

### 안 죽는 종교입니다.



본지 지남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苦海)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고통의 바다를 오늘도 헤엄쳐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기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은 모든 고통을 이긴 분입니다.

어떤 괴로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싶다면 승리제단을 두드리십시오. '이기신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은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예배시간안내			
월-토요일	1부 예배	오전 9시 / 2부 예배	오후 2시
	3부 예배	오후 7시(단, 토요일은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1시		
위치	지하철 1호선 역곡 남부역에서 도보 7분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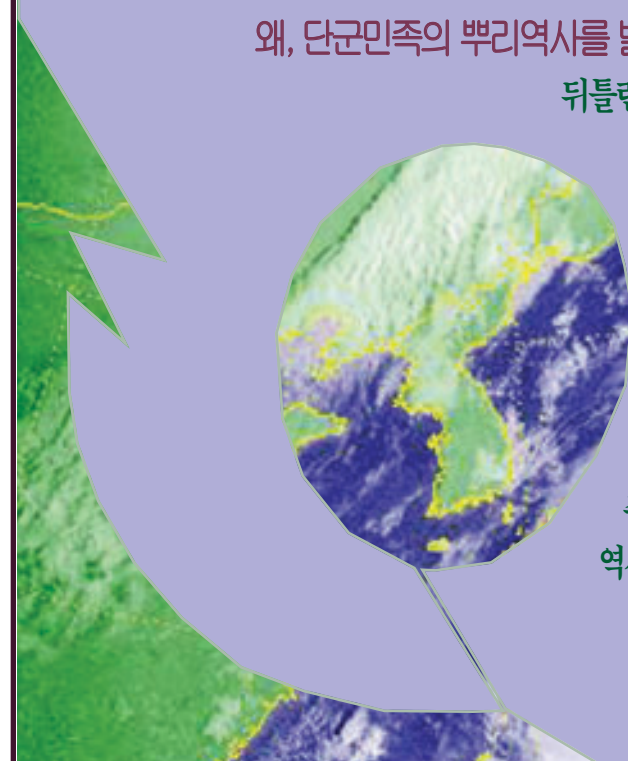
###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우1467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TEL. 032-343-9981~2 <http://www.victor.or.kr>

## 우·리·역·사·바·로·잡·기·캠·페·인

승리제단 우리역사 바로잡기 운동본부  
(연락처: 032-343-9981, 010-5583-4938)

왜, 단군민족의 뿌리역사를 밝혀야만 하는가?  
뒤틀린 인류사를 바로 잡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왜, 단군민족은 위대한 민족인가?  
구세주를 낳은 민족이요, 인류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민족이기 때문이다.